

건축사, 협회 그리고 독불장군(獨不將軍)

Architects, our Institute and a Person left out in the cold

흔히들 건축을 찬미하는 입장에서는 건축을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요즘은 건축사가 마스터 엔지니어(Master Engineer)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네덜란드의 건축가 렘 콜하스(Rem Koolhaas)는 건축가라는 직업을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직업으로 말하고 있다. 자신의 구상을 현실화시키는데 만 몰두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기획을 빌어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자 노력하는 인간들이 건축가이며 항상 과대망상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가는 보통수준의 건축인이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예술가 반열에 올라선 작가를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건축사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위험한 직업'으로 느껴짐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다. 다만 우리네 건축사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자기의 재산과 아이디어를 투자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과대망상에 젖을 틈도 없이 노력하는 것이 렘 콜하스가 말하는 건축가와는 다른 점이다.

어떻든 건축사란 불안하고 위험한 직업인 것은 맞는 말인 것 같다. 항상 자기작품에 만족을 못하는데서 오는 본질적이며 정신적인 불안감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건축사들이 불안하고 위험한 직업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된 작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독불장군의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마스터 엔지니어의 기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마스터 엔지니어만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유일한 길일까?

그것은 건축설계를 하루 빨리 개인적인 작업 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고전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체제로 바꿈으로써 작업환경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감의 수주, 계획, 설계, 시공감리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건축사와 몇 명의 보조원이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고전적인 작업관습에 따라 일관적으로 아무 탈 없이 수행해 가기에는 주변의 여건들이 용납해주지를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고객의 요구가 전문화되고 증대될 뿐만 아니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서비스의 범위, 종류, 요구사항들은 더 많아지고 세부적이며 보다 완벽한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하기에 대다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 할 수 없게 되고 허가대행기능으로 존립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건축설계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경제활동구조 특히 시공, 엔지니어링, 부동산개발, 감리 등의 업종은 조직규모와 업무의 영역도 계속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업무영역 경계선도 없어지고 있으며, 독립된 업무들도 상호 융합화(Fusion)되어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듯 우리 주변은 급속한 변화와 구조조정으로 각자의 시스템을 다방면으로 개발 확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설계업계는 어떠한지 한번 반추해 보자. 아직도 개인 작업 틀을 유지하는 영세규모의 사무소가 거의 전부이다.

건축디자인 기능 이외에 필수적인 구조, 전기 및 통신, 기계설비 등의 기본적인 설계기능을 보완시켜 규모화를 이루는 것도 시스템화로 유도하는 구조조정일 수 있지만 현실적 여건,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실행에 옮기기까지에는 상당한 용기와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업무의 영역을 넓히고 규모를 확대하는 수평적 확장만이 건축설계업계의 구조조정일 수는 없다. 현 기능을 수직적으로 확장 개발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전문화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의뢰계와 같이 건축설계체계도 건축물을 용도별 전문설계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별 전문화, 공사부문별 전문화도 가능한 구조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현재 각 건축사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Know how)를 바탕으로 전문화의 방법을 찾아보면 그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무로 나오키(小室直樹)는 한국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던 80년대에 「한국의 붕괴란 책을 통하여 한국인의 의식 근저에 깔려 있는 양반근성(兩班根性)과 장인정신(匠人精神)의 결여 때문에 한국은 붕괴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수출 생산 원가의 대부분을 부품비와 특허료로 미, 일에 내어줌으로서 목줄 묶인 양쯔강의 가마우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장인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로정신(Professional Spirit) 즉, 전문가정신이 아닐까. 「한국의 붕괴」를 「한국 설계업의 붕괴」로 바꾸어 생각해 보자. 하나의 건축물을 탄생시키는데 마스터 엔지니어는 적을수록 좋다. 마스터 엔지니어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의 기능밖에 못한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Professional Engineer) 즉, 전문분야의 건축인이 많이 참여할수록 내실 있는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설계업의 수직적 구조조정은 전문화를 유도하고 장인정신으로 설계도서 전반에 정성과 혼을 불어 넣음으로써 건축설계의 품질과 설계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건축사 업무의 구조조정도 설계업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분하여 세부적으로 수직적인 방향에서 전문화 시키는 방법을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차체에 우리협회도 회원관리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건축사업무의 전문화, 업무영역개발 그리고 건축설계직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건축설계업 구조조정 문제를 정책적인 연구과제로 채택하는데 협회 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여기서 필자는 마스터 엔지니어가 되기만을 지향하면서 불안하고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새내기 건축사를 포함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중견 건축사들께 당부 드리고자 한다.

스스로 독불장군의 미망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찰해 보자. 또한 1등(Master Engineer)만을 추구하면서 스스로의 여건과 주변의 변화에는 깊은 고려도 없이 결코 2등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며 개업을 서두르지는 않는지...

현대의 건축은 1등보다도 특정분야에 전문적이면서 깊이 있는 건축사(Professional Engineer), 즉 2등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1등은 2등보다 불안하고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가마우지의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한국이 아니라 기실 뒤에서 부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일본이다.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2등이 불안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고, 나아가 한국 건축의 내실을 다지는 구조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색의 계절 가을 나와 우리,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 보자.

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협회도 크고 작은 독불장군들의 모임체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가끔 있다. 자기의 주장만이 옳고 모두가 제각기 1등이며, 결코 2등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다.

우리들이 언제나 외치면서 해결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커지지만 하는 문제점들, 건축사의 위상, 저렴한 설계용역비, 건축사시험제도, 교육인증원 설립, 기타 권익보호와 관련된 현안 사항들...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단순한 격언은 인간만사해결의 공통진리이다. 지난 일을 정리한다고 역사가 바로 서고, 잘잘못을 따지기만 한다고 협회가 바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ㅁ